



미 증시,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급락

미국 증시 리뷰

19 일(월) 미국 3 대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 및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미중 갈등 재부각, 7 월 주택지표 부진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급락세로 마감(다우 -2.1%, S&P500 -1.6%, 나스닥 -1.1%). 업종별로는 에너지(-3.6%), 금융(-2.8%), 소재(-2.2%), 산업재(-2.2%) 등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전업종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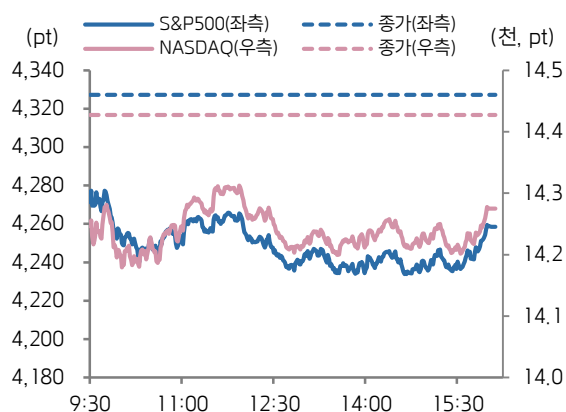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최근 1 주일간 일평균 신규확진자수가 3 만명대로 급증했으며(지난달 일평균 1.1 만명대), 대부분 확진자들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7 월 NAHB 주택지수(주택채감경기지표)는 80.0 으로 전월(81.0) 및 예상치(81.0)를 모두 하회. 견조한 주택 수요에도, 인력 부족 현상, 건자재 가격 상승 등이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 부진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

미국 증시 평가

미국 10 년물금리가 1.1%대로 하락하며 올해 2 월 수준까지 내려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금리 하락은 수급 이슈 이외에도 성장 전망 둔화 우려도 상당부분 개입이 된 것으로 판단. 여전히 많은 경제주체들은 현재의 고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나아가, 델타 변이 확산세 심화가 그간 막대한 부양책 효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 경기를 코로나 사태 당시로 원점 복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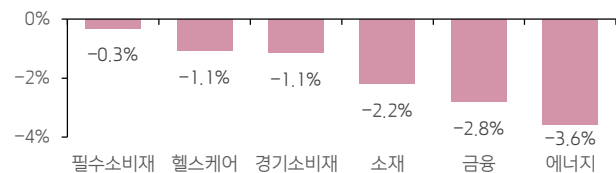
그러나 인플레이션 급등, 델타 변이 확산이 경기를 재침체(or 스테그플레이션)에 빠뜨리거나, 증시의 본격 조정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해당 재료들은 이미 수개월 이상 동안 시장에 노출되어 왔던 악재이기 때문. 현재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경은 높은 지수 레벨, 높은 기업 이익 증가율, 높은 경제 성장률 등 높이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지 못한데서 주로 기인. 하지만 기업이익 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상기 악재가 재부각됨에 따라 시장의 조정이 찾아오더라도 그 성격은 기간 조정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7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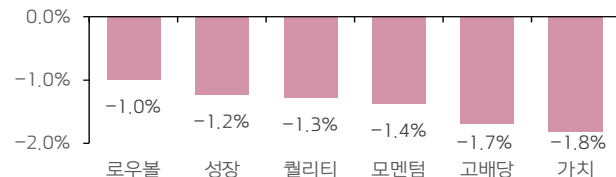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1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1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2.3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6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1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경기 둔화 우려 확대에서 기인한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하방 압력 2. 미국 중소형주 급락 충격이 국내 중소형주들로의 전이 가능성 3. 1,150 원대 상향 돌파가 예상되는 원/달러 환율로 인한 외국인 순매도세 심화 여부 |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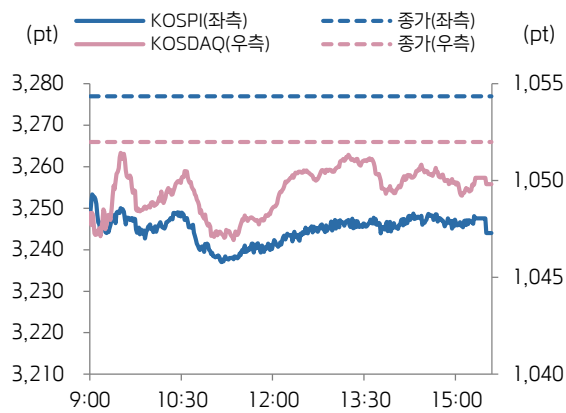
19 일(월) 코스피는 미국 7 월 소비자심리지수 부진에 따른 인플레이션발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2 분기 실적 시즌 이후의 실적 전망에 대한 경계 심리도 부각된 여파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세를 보임에 따라 하락 마감. 다만, 코스닥은 2 차전지 및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책 및 실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인 영향에 힘입어 낙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임(코스피 -1.0%, 코스닥 -0.2%). 업종별로는 전기가스(+1.37%), 통신(+1.07%), 비금속광물(+0.01%) 등이 강세, 의료정밀(-2.47%), 철강금속(-2.32%), 보험(-1.66%)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40 억원, 4,580 억원 순매도, 개인이 9,380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급락 여파가 아시아 지역 내 위험자산회피심리를 확대시킴에 따라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델타 변이발 경기회복세 지연 우려가 미국 증시 급락의 주된 배경이었던 만큼,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 경제 재개 관련주들 위주로 주가 하락 압력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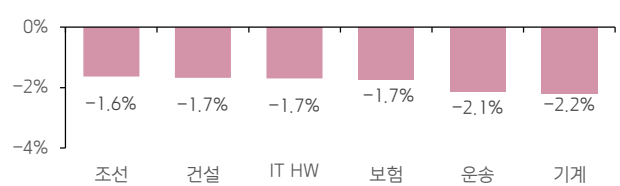
또한 미국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급락세가 심했었다는 점을 감안 시, 최근 대형주들에 비해 주가 상승세가 컸던 국내 중소형주들의 차익실현 물량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선거래일에 한국 증시가 동일한 이슈로 하락세를 겪었던 만큼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글로벌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 시 금일은 보수적인 시장 접근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7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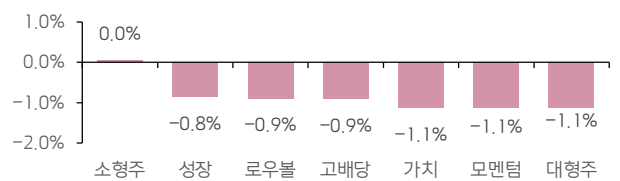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1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1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류,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 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승,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